

정판

'91 채란업 전망

병아리 생산 잠재력 급증, 정상적인 노계도태 요구된다

지난 90년도는 채란업, 종계업, 부화업 모두 즐거운 한 해였다. 이는 예전에 볼 수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보기 힘든 호경기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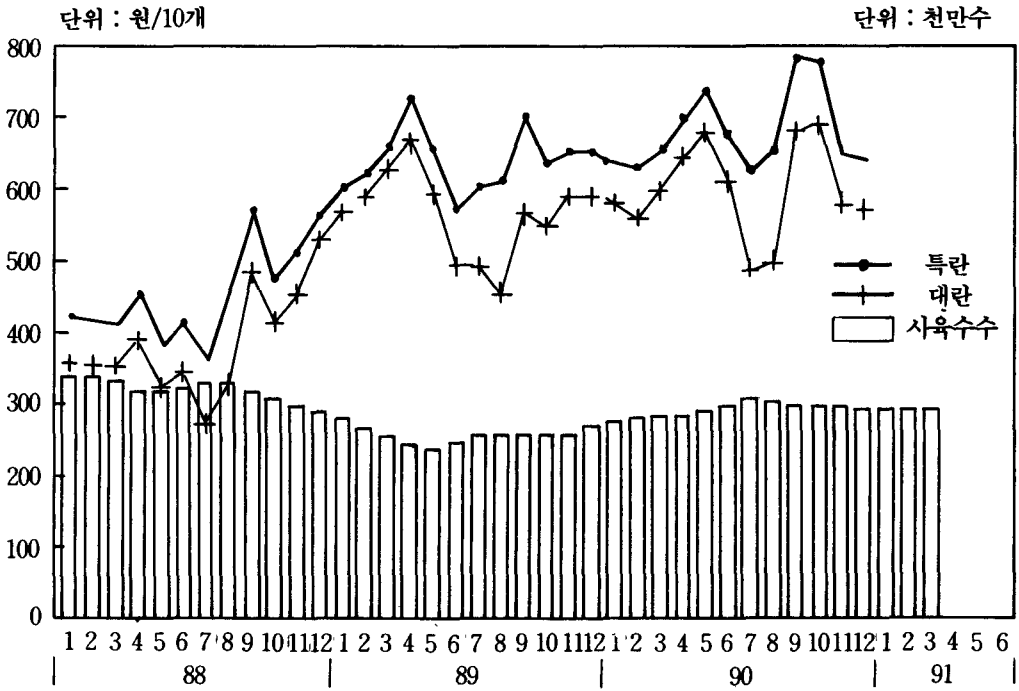
그러나 90년도 하반기의 각종 통계자료는 금년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다.

먼저 지난 몇년간의 특, 대란가와 채란계 추정 사육수수를 살펴



김기경
고창양계 기획실 차장

보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채란계 사육수수는 매월의 입추수수 <표 1>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산란기간인 14개월간 합계를 하고 여기서 계속 1개월씩 더하고 빼는 방법으로 추정한 것이며 육성기간을 4개월로 계산하여 4개월후의 사육수수로 가정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 계란 생산에 사용되는 성계의 수수를 뜻한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채란계 사육수수와 난가



〈그림 1〉 난가와 채란계 추정사육수

는 반비례하고 있다.

90년 11월과 12월에 채란계 사육수수는 늘지 않았으나 난가가 하락한 것은 육계값의 하락으로 인해 노계도태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이는 곧 실제 채란계 사육수수가 추정된 것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의 채란계 사육수수를 어느정도 정확히 표시해 주는 산란사료 생산실적(그림 2)을 보아도 이 기간에 생산이 증가 된것 즉, 채란계 사육수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그림 3)의 특란과 대란의 가격차이를 보면 난가가 하락했을 때 가격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난가하락이 노

〈표 1〉 월별 채란계 입식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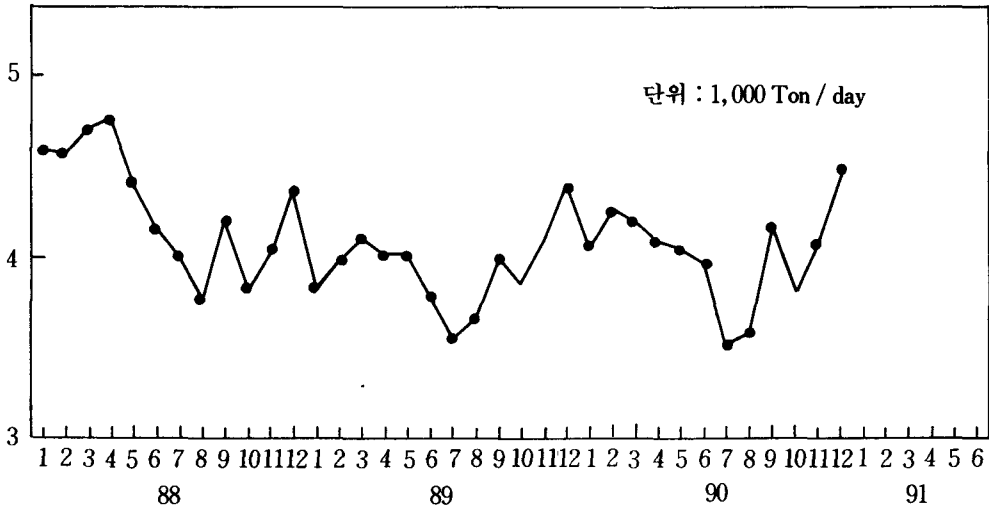
(단위 : 1,000수)

	89년	90년	비고
1	1,356	1,970	
2	2,569	1,959	
3	2,683	2,302	
4	2,420	2,117	
5	2,562	2,229	
6	2,352	2,229	
7	1,925	2,405	
8	2,237	2,127	
9	2,197	2,026	
10	1,959	2,026	
11	1,806	2,293	
12	1,904		
계	25,970		

계도태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특란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90년 말에는 난가가 다소 떨어졌으나 특, 대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현재의 채란계 사육수수 중에서 노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따라서 91년 초반의 난가하락은 초생추 입추가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계도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제 산란에 기여하는 채란계 사육수수는(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3천만수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수수가 3천만수를 초과했던 88년도에 난



〈그림 2〉 월별산란사료 생산실적(1일 생산량 기준)

가가 대폭 하락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3천만수 정도가 적정 사육수수로 생각되며 따라서 봄철의 계란소비 증가와 육계값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노계 정리가 원활해 진다면 금년 상반기에는 88년도와 같은 이례적인 난가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

채란계 사육농가에서도 현재 사육중인 계군을 마지막으로 채란업을 포기할 예정이 아니라면 다음 계군의 난가안정 및 소득안정을 위해서 경제수명이 지난 노계의 도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난가가 다소 올라간다고 해서 이에 연연하여 노계도태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전반적인 노계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물량증가로 인한 노계값의 계속적인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회복이 점점더 어려워질 뿐이다.

〈표 2〉는 월별 채란용 종계 입식수수이다. (그림 4)는 종계사육 추정수수로서 채란계 추정 사육수수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것이며 단지 초생추 생산시기를 입추 7개월 후부터로 보았다는 점만 다

〈표 2〉 월별 채란종계 입식수수
(단위 : 수)

	89년	90년	비고
1	84,937	29,200	
2	40,147	41,900	
3	23,475	32,600	
4	41,646	20,100	
5	56,067	62,402	
6	28,400	121,743	
7	24,025	27,785	
8	14,750	23,800	
9	67,450	45,300	
10	45,300	80,208	
11	40,550	59,004	
12	33,201	62,157	
계	499,948	606,199	21.3% 증가

르다. 종계사육 추정수수도 채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초생추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종계 사육수수를 뜻하며 육성기간 중에 있는 수수는 제외된 것이다.

먼저 (표 2)를 보면 90년도에 입식된 종계수수는 606,199수로서 89년도의 449,948수에 비하여 21.3% 증가되었다. 이것은 곧 금년도 하반기에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90년 하반기의 종계입식 증가로 인해 금년에 들어서면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종계의 수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5월부터는 88년도 초의 60만수 수준을 훨씬 웃돌게 된다.

종계 사육수수와 초생추 입추수

수가 정확히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만약 이런 추세로 초생추 입추가 계속 된다면 금년 하반기 부터의 난가하락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연말 무렵에는 88년도 수준의 난가도 보장하기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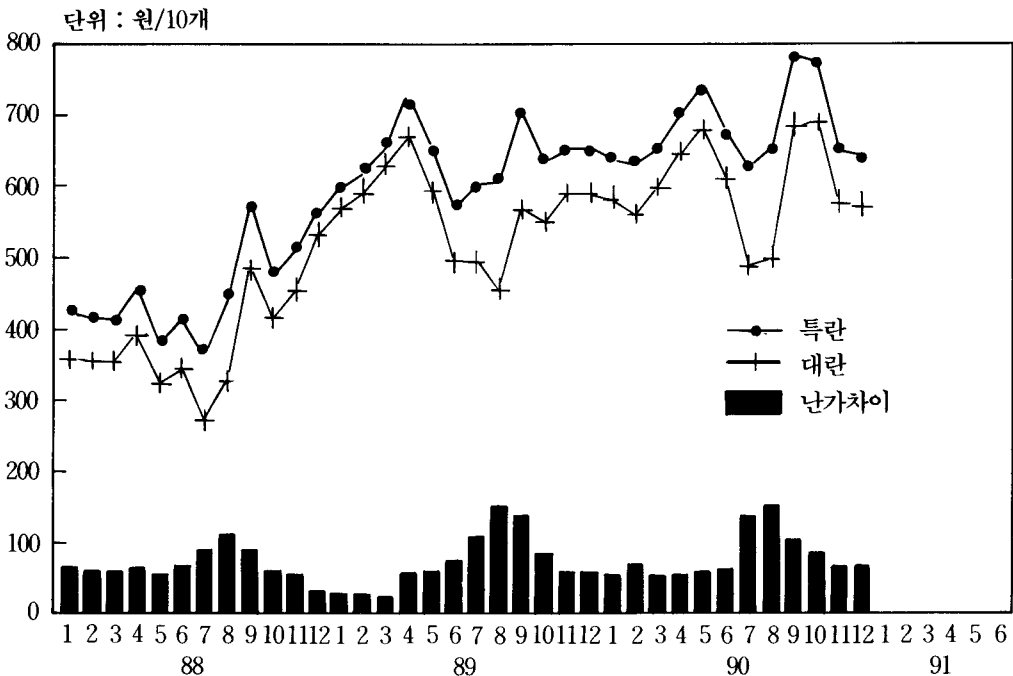
종계장이나 부화장에서 병아리 판매에만 급급하여 터무니 없는 값의 덩핑판매 또는 누구든지 병아리를 팔아주기만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무책임한 위탁판매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판매는 전반적인 채란계 입식수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예상되는 불황의 골을 더 깊게, 더

넓게 할 뿐이다. 고객보호의 차원에서라도 판매수를 늘리는 것보다 품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싸게 많이 파는 것보다 적량을 제값 받고 파는 것이 부화장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입추수수 조절을 통한 난가안정 즉, 실제 채란계사육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부화장에서부터 병아리를 구입하는 농가와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하는 부화장은 결코 서로 다른 배를 탈 수 없다.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상황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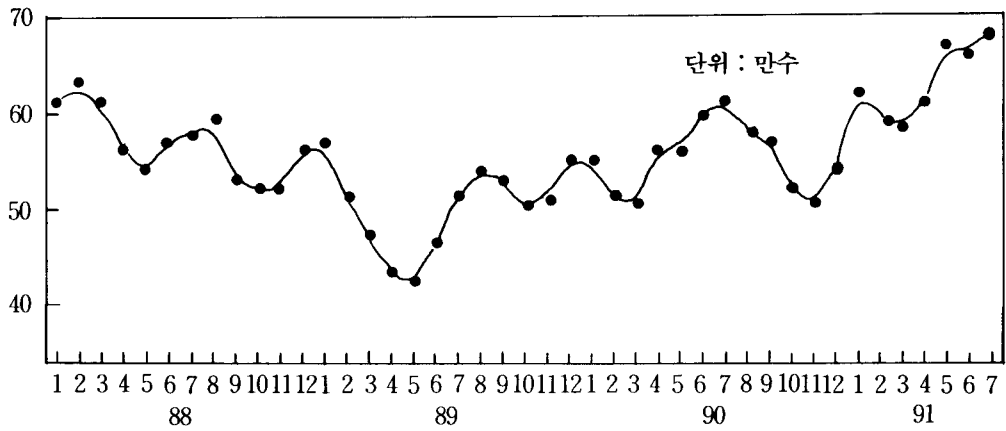
채란계 사육농가에서도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

하에 입추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그동안의 호경기에 용기를 얻어 종계를 입식한 신규 채란계 부화장이나, 무리하게 종계입식수수를 늘린 부화장들은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앞서 언급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해서 아무런 사양가 서비스 대책도 없고, 품질도 보장받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매업자로부터 병아리로 구입하는 것은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바로 앞으로 예상되는 불경기를 유지한 주요인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하겠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



〈그림 3〉 난가와 특, 대란 가격차이



〈그림 4〉 채란종계 추정사육수

이 떨어진다. 자유 시장경제의 첫 번째 원리이다. 생산과잉으로 인한 난가하락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난가 하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 하나 외국으로부터의 계란 및 난제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밖에는 없다.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수입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 때에 가서 또 누구를 탓할 것이며,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행히 현재의 우리나라 채란업계는 89년부터 계속된 전례 없던 호황으로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출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 그동안 축적한 힘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시설개선, 유통구조 개선, 품질향상 등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각종의 통계자료가 예시하는 어두운 전망과는 달리 91년도는 우리나라 채란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참고 : 농림수산부·대한양계협회 자료)

대한양계협회 '91정기총회

- 일시 : 1991. 2. 26 오후 2시
- 장소 : 축산회관 회의실